

F1001 팀챌린지자산배분A형(IBK자산운용)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팀챌린지자산배분A형(IBK자산운용)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위탁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위탁된 날 이후 9개월에 한합니다.
3. 자산은 IBK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 | |
|-------------|--|----------|-------------------|
| 펀드명칭 | 팀챌린지자산배분A형(IBK자산운용) | | |
|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 B6609 | | |
| 펀드의 종류 | 변액보험, 추가형, 종류형 | 최초설정일 | 2015.08.03 |
| 운용기간 | 2021.04.01 ~ 2021.06.30 | 종속기간 | 추가형으로 별도의 종속기간 없음 |
| 자산운용회사 | ABL생명보험 | 펀드재산보관회사 | 우리은행 |
| 판매회사 | ABL생명보험 | 일괄사무관리회사 | 하나펀드서비스 |
| 상품의 특징 |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ETF), 집합투자증권, 상장주식, 채권 등을 이용하여 전세계 다양한 자산군(주식, 채권, 원자재, 단기자산 등)에 분산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 |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원, %)

| 펀드명칭 | 항목 | 전기말 | 당기말 | 증감률 |
|---------------------|---------------------|----------|----------|--------|
| 팀챌린지자산배분A형(IBK자산운용) | 자산 총액 (A) | 2,943 | 2,758 | -6.28 |
| | 부채 총액 (B) | 86 | 3 | -95.99 |
| | 순자산총액 (C=A-B) | 2,858 | 2,755 | -3.60 |
| |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 2,495 | 2,326 | -6.75 |
| | 기준가격 (E=C/D × 1000) | 1,145.32 | 1,184.09 | 3.39 |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액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4월은, 경제재개에 따른 소비회복 기대가 일차적으로 주가에 반영되었다는 판단으로 여행, 레저/엔터, 게이밍 ETF를 전부 매도, 미국 지방은행 ETF도 전부 매도하였습니다. 반면 인프라와 산업재 포지션은 비중 확대, 주택건설 관련 ETF도 신규로 편입하였습니다. 인컴전략의 경우, 미국리츠 3종목을 신규로 편입하였습니다. 5월은, 성장전략에서 반도체 섹터와 한국 IT섹터를 전부 매도, 유럽주식을 추종하는 ETF를 신규로 편입하였습니다. 인컴전략에서는 미국 리츠 비중을 상향, 금리상승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비하기 위하여 미국 단기 물가채 포지션을 분할매수로 구축하였습니다. 6월은, 중순까지는 변동성 확대를 염두에 두고 시장대응에 집중했으며, 이후에는 주식 포지션을 성장주 위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성장전략에서는 기존의 경기민감주 포지션을 축소하는 대신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인컴전략에서는 미국 리츠와 국내자산 일부를 이익 실현하였습니다. 시장대응 차원에서는 기 구축한 변동성 매수 포지션을 전부 청산하였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7월 전망에 앞서 우선 5월의 금융시장 흐름을 다시 짚어보면, 최근S&P500지수는 4,300pt에 안착한 모습이지만 4월 중순부터 5월말까지는 4,200pt를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습니다. 5월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과 기준금리 인상 우려 때문입니다. 5월에 발표된 4월 물가지표는 기저효과가 상당했으며, 옐런 미 재무장관의 기준금리 인상 언급도 시장의 불안감을 조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빨라진 백신 접종 속도로 인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우위를 가지며 증시는 안정화되었습니다. 4월 FOMC 의사록에서 테이퍼링이 언급되었으나 시장 영향력은 크지 않았고, 특히 채권시장에서는 빠르게 해당 이벤트를 소화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도 4월 고용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증시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이런 5월의 금융시장 흐름을 7월 초 현재와 비교한다면, 우선 인플레이션 우려는 상당부분 감소하였고, 향후 기저효과도 점차 축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부분은 고용의 개선 속도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고용의 빠른 회복이 관찰될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는 다시 커지고, 장기금리도 재상승하며 증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회복의 경우는, 성장률 전망치의 추가적인 개선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부정적 요소입니다. 기업이익 측면에

서는 중순부터 시작된 2분기 어닝시즌 이후 이익전망치의 상향 여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하면, 지금까지 증시의 변동성 확대 요인들이 다소 완화는 되었으나 경기회복세 유지와 이익 모멘텀 개선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테이퍼링과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점차 가까워 오고 있다는 점은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섹터 측면에서도 빠른 로테이션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격적 기조보다는 현재의 방어적인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시장 대응에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 최근 3개월 | 최근 6개월 | 최근 9개월 | 최근 12개월 |
|---------------------|--------|--------|--------|---------|
| 팀챌린지자산배분A형(IBK자산운용) | 3.39 | 4.32 | 10.56 | 14.34 |

※ 비교지수(벤치마크): (주)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 최근 1년 | 최근 2년 | 최근 3년 | 최근 5년 |
|---------------------|-------|-------|-------|-------|
| 팀챌린지자산배분A형(IBK자산운용) | 14.34 | 17.33 | 14.50 | 19.49 |

※ 비교지수(벤치마크): (주)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 증권 | | | 집합투자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손익 합계 |
|----|----|----|----|------|------|----|-----|-------|----|-----------|-----|-------|
| | 주식 | 채권 | 어음 | | 장내 | 장외 | | 실물 자산 | 기타 | | | |
| 전기 | 7 | 0 | 0 | 62 | -78 | 0 | 0 | 0 | 0 | -1 | 51 | 42 |
| 당기 | 20 | 0 | 0 | 78 | 9 | 0 | 0 | 0 | 0 | 0 | -13 | 9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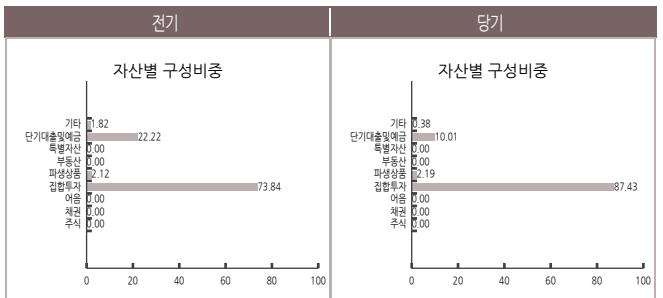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증권 | | | 집합투자 | 파생상품 | | 부동산 | 특별자산 | | 단기대출 및 예금 | 기타 | 자산 총액 |
|-----------|--------|--------|--------|---------|--------|--------|--------|--------|--------|-----------|--------|---------|
| | 주식 | 채권 | 어음 | | 장내 | 장외 | | 실물 자산 | 기타 | | | |
| JPY | 0 | 0 | 0 | 21 | 0 | 0 | 0 | 0 | 0 | 47 | 0 | 68 |
| (10.19) | (0.00) | (0.00) | (0.00) | (0.77) | (0.00) | (0.00) | (0.00) | (0.00) | (0.00) | (1.70) | (0.00) | (2.47) |
| USD | 0 | 0 | 0 | 2,080 | 0 | 0 | 0 | 0 | 0 | 109 | 0 | 2,189 |
| (1126.10) | (0.00) | (0.00) | (0.00) | (75.42) | (0.00) | (0.00) | (0.00) | (0.00) | (0.00) | (3.94) | (0.00) | (79.35) |
| KRW | 0 | 0 | 0 | 310 | 60 | 0 | 0 | 0 | 0 | 121 | 11 | 501 |
| (1.00) | (0.00) | (0.00) | (0.00) | (11.24) | (2.19) | (0.00) | (0.00) | (0.00) | (0.00) | (4.37) | (0.38) | (18.18) |
| 합 계 | 0 | 0 | 0 | 2,411 | 60 | 0 | 0 | 0 | 0 | 277 | 11 | 2,7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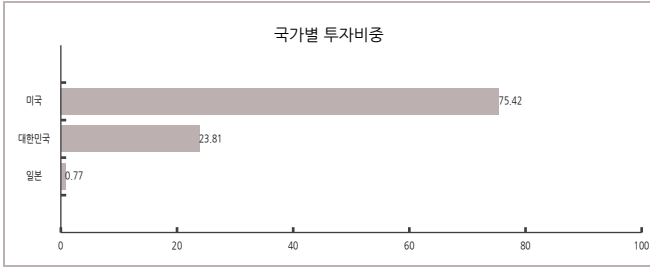
※ (): 구성비중



▶ 국가별 투자비중

(단위: %)

| | 국가명 | 비중 | | 국가명 | 비중 |
|---|------|-------|----|-----|----|
| 1 | 미국 | 75.42 | 6 | | |
| 2 | 대한민국 | 23.81 | 7 | | |
| 3 | 일본 | 0.77 | 8 | | |
| 4 | | | 9 | | |
| 5 | | | 10 | | |



▶ 환헤지에 관한 사항

| 환헤지란? | -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
|---------------|---|
|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 -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강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 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분 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됩니다. -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약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 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 환헤지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

(단위: %, 백만원)

|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 기준일(21.06.30) 현재 환헤지 비율 | 환헤지 비용 (21.04.01 ~ 21.06.30) | 환헤지로 인한 손익 (21.04.01 ~ 21.06.30) |
|--------------------|-------------------------|---|----------------------------------|
| - | 78.8 |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환헤지로 발생한 손익 사항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하는 환헤지손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보유현황

▶ 통화선물

(단위: 계약, 백만원)

| 종목 | 매수/매도 | 계약수 | 미결제약정금액 | 비고 |
|--------------|-------|-----|---------|----|
| 미국달러 F202107 | 매도 | 158 | 1,780 |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 종목명 | 비중 | 구분 | 종목명 | 비중 |
|----|--------------------------------------|-------|----|-------------------------------------|------|
| 1 | 집합투자증권 VANGUARD S&P500 ETF | 22.38 | 6 | 집합투자증권 SPDR DJIA TRUST | 5.03 |
| 2 | 집합투자증권 Invesco QQQ Trust Series 1 | 9.45 | 7 |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 4.37 |
| 3 | 집합투자증권 GLOBAL X NASD 100 COV CAL ETF | 7.57 | 8 | 집합투자증권 iSHARE CORE MSCI EUROPE | 4.34 |
| 4 | 집합투자증권 맥쿼리인프라 | 6.54 | 9 | 집합투자증권 VANGUARD INFO TECH ETF | 4.28 |
| 5 | 집합투자증권 PROSHARES SHORT VIX ST FUTURE | 5.87 | 10 | 집합투자증권 PROSHARES ULTRASHORT 20+Y TR | 3.99 |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최수, 백만원, %)

| 종목명 | 종류 | 설정원본 | 순자산금액 | 발행국가 | 통화 | 비중 |
|-------------------------------|------|------|-------|------|-----|-------|
| VANGUARD S&P500 ETF | 수익증권 | 570 | 617 | 미국 | USD | 22.38 |
| Invesco QQQ Trust Series 1 | 수익증권 | 251 | 261 | 미국 | USD | 9.45 |
| GLOBAL X NASD 100 COV CAL ETF | 수익증권 | 206 | 209 | 미국 | USD | 7.57 |
| 맥쿼리인프라 | 수익증권 | 153 | 180 | 대한민국 | KRW | 6.54 |
| PROSHARES SHORT VIX ST FUTURE | 수익증권 | 162 | 162 | 미국 | USD | 5.87 |
| SPDR DJIA TRUST | 수익증권 | 137 | 139 | 미국 | USD | 5.03 |
| iSHARE CORE MSCI EUROPE | 수익증권 | 119 | 120 | 미국 | USD | 4.34 |
| VANGUARD INFO TECH ETF | 수익증권 | 113 | 118 | 미국 | USD | 4.28 |
| PROSHARES ULTRASHORT 20+Y TR | 수익증권 | 113 | 110 | 미국 | USD | 3.99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주, 백만원, %)

| 종류 | 금융기관 | 취득일자 | 금액 | 금리 | 만기일 | 발행국가 | 통화 |
|----|------|------------|-----|------|-----|------|-----|
| 예금 | 우리은행 | 2015-08-03 | 121 | 0.23 | - | 대한민국 | KRW |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 성명 | 직위 | 나이 | 운용중인 펀드 현황 | |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운용규모 | | 협회등록번호 |
|-----|-----|----|------------|-----------|------------------------|------|------------|
| | | | 펀드개수 | 운용규모 | 펀드개수 | 운용규모 | |
| 최미영 | 부서장 | 42 | 81 | 2,633,760 | - | - | 2119000125 |
| 이대석 | 차장 | 39 | 81 | 2,633,760 | - | - | 2120001220 |
| 김태현 | 과장 | 81 | 81 | 2,633,760 | - | - | 2119000109 |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 기간 | 운용전문인력 |
|-----------------|--------|
| 2019.01.25 ~ 현재 | 최미영 |
| 2020.09.17 ~ 현재 | 이대석 |
| 2019.01.24 ~ 현재 | 김태현 |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백만원, %)

| 구분 | 전기 | | 당기 | | |
|----------------|------------------|------|------|------|------|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 자산운용사 | 2 | 0.06 | 2 | 0.06 | |
| 판매회사 | 4 | 0.15 | 4 | 0.15 | |
|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 0 | 0.00 | 0 | 0.00 | |
| 일반사무관리회사 | 0 | 0.00 | 0 | 0.00 | |
| 보수합계 | 7 | 0.21 | 6 | 0.22 | |
| 기타비용 | 2 | 0.05 | 2 | 0.07 | |
| 매매 중개수수료 | 단순매매 중개수수료 | 6 | 0.18 | 5 | 0.19 |
| |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 0 | 0.00 | 0 | 0.00 |
| | 합계 | 6 | 0.18 | 5 | 0.19 |
| 증권거래세 | 0 | 0.01 | 0 | 0.00 | |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 중개수수료는 제외합니다.

※ 성과보수내역: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연환산, %)

| | 총보수·비용비율(A)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B) | 합계(A+B) |
|----|-------------|----------------|---------|
| 전기 | 0.9859 | 0.4074 | 1.3933 |
| 당기 | 1.0296 | 0.5118 | 1.5414 |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 매매 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 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균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 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팀챌린지자산배분A형(BK자산운용)' 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단서에 의거하여 향후 불가피하게 임의헤지를 통해 정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